



2013학년도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 입학식이 4일 오전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입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소원풍선을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교생 장래 꿈 담은 풍선 날리고 '저녁 입학식'... 퇴근한 아빠도 왔다

상일여고 등 광주·전남지역 이색 입학식 화제

지루한 교장 선생님 말씀과 교가로 마무리하던 입학식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또 학부모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석시키고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학식 아이디어들이 선보이고 있다.

광주 상일여고(교장 김진구)는 올해 신입생 290명의 입학식을 4일 오후 8시 학교 대강당에서 치렀다. 생업 때문에 입학식 참석이 부담스러운 부모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녁에 입학식을 한 것이다.

김진구 교장은 "입학식이 끝나고 학부모 상담도 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도 함께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 훨씬 교육적

이라고 판단했다"며 '저녁 입학식' 배경을 설명했다.

상무고는 학부모 참석을 더욱 높이고 아예 금요일 저녁에 입학식을 치르기로 했다.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이 각자 꿈을 말하면 6학년 선배들이 동생들의 이름과 꿈을 적어 알록달록한 풍선에 담아 함께 날리며 선배가 일체감을 갖도록 했다. 광주 운암초도 매년 입학식에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형극을 선보이고 있다.

담양중(교장 김성희)은 관행적인 입학식 틀에서 벗어나 신입생 모두가 재능과 장점을 고려해 수립한 진로비전(vision)을 선생님과 학부모 앞에서 선포하도록 하는 '비전선포식'으로 대체, 눈길을 끌고 있다.

4~5일 열리는 입학식에서는 전체 신입생 대상 진로비전캠프로 꿈을 심어준다. 이틀째인 5일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꿈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해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에는 후배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드림나타반의 웅장한 두드림, 힙합댄스, 대나무악기 합주, 통기타와 그룹사운드 협연 등도 곁들여 입학식은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진다. /박정욱기자 jwpark@/담양=정재근기자 jigg@

학교주변 경찰 집중배치...학폭 조기차단

학교 반경 200m 이내와 학원가 밀집지역 등 학생 이동이 많은 구역에 이달부터 정부 경찰관이 집중 배치된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학기초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학교별로 이른바 '일진' 중심의 세력이 규합되거나 서열이 형성되는 기간이 통상 학기초이기 때문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은 우선 학교 주변 200m를 학

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등하교 시간대 정부 경찰관과 아동안전지킴이를 학교 주변과 학원 밀집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2270명인 아동안전지킴이를 올해 5882명까지 늘려 학교시간대 통학로 주변 놀이터나 공원, 골목길 등 아동범죄 취약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 추진

민주 김동철의원...광산·나주 등 5개지역 관할

광주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4일 광주 광산구와 나주시·영광군·장성군·함평군을 관할하는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서부지원이 신설되면 광주지법은 광주 동구와 서구·북구·남구·화순군·담양군·곡성군을 관할하게 된다.

현 광주지법의 관할지역은 광주시와 나주시 및 인근 5개 군(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을 관할하고 있고, 관할인구가 약 1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서부지

원이 신설되면 광주지법의 사건이 30~40%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994년 신축된 광주지법 청사는 재판부 증설, 민원 편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라며 "현재 지방청사가 광주의 동쪽에 있어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수완지구, 광산구·함평 국가산업단지, 나주혁신도시, 영광 대마산업단지 등으로 앞으로 인구규모가 예상되면서 법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부지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월산동서 남구청 직진 신호 가능

백운고가 밑 교통섬 철거 2개 직진차로 개설

오는 8일부터 광주시 남구 월산동 방면에서 백운고가 밑 도로를 거쳐 남구청 방면으로 직진할 수 있게 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백운고교 교차로를 철거하고 2개의 직진 차로를 개설, 월산동에서 봉선동 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남구의회와 신우아파트 방한에서 봉선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운고가 밑을 지나 광주대와 대동고 방면으로 우회한 뒤 우회하거나 백운고가를 거쳐 비좁은 골목길로 진입해야 해 민원인의 불편이 잇따랐다.

광주청은 또 백운고가 밑 도로에서 광주대 방면으로 우회한 차선들을 따로 분리, 사고 위험을 제거했다고

■ 백운고장 신호체계 개선

몇달였다.

반면, 출퇴근길 월산동과 풍암동 방면에서 남구청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호체계 개선에 따른 교통 정체가 보다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도 대법,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7분 / 해질 18시 31분 / 달돋이 01시 23분 / 달질 11시 45분

경칩

맑은 가운데 낮에는 따뜻하겠다.

광주	맑음	-1/14℃
목포	맑음	0/12℃
여수	맑음	3/13℃
나주	맑음	-3/14℃
완도	맑음	0/15℃
구례	맑음	-4/15℃
강진	맑음	-4/15℃
해남	맑음	-4/15℃
장흥	맑음	-4/15℃
순천	맑음	-4/14℃
영광	맑음	-3/11℃
진도	맑음	-2/14℃
전주	맑음	-2/13℃
군산	맑음	-2/10℃
남원	맑음	-4/13℃
옥산도	맑음	4/11℃

〈오전〉 바다

종항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0.5~1.0m	관심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0.5~1.0m		높음

〈오후〉 바다

종항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포 07:38 19:41	12:44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여수 02:13 14:23	08:29 20:38

◇주간날씨

날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17	6/16	8/20	7/20	4/14	3/15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학부모 논의없이 유치원비 못 올린다

올해부터 학부모 대표 등 심의 의무화

올해부터는 유치원이 학부모 대표의 심의·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금,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다만 학교 별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수업료와 방과후 과정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면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받아 자문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연합뉴스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 15일까지 1주일 연장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기간을 이달 8일까지에서 1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인터넷 신청시스템(onedclick.mest.go.kr, www.bokjiro.go.kr)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4일 현재까지 57만3000명이 신청했으나 지난해 전체 신청자수인 132만4천명의 43.3%에 불과하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금, PC·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황상제주 불사본 BIG HIT! 제주여행

3년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2박3일 (월반호텔) 1인 ₩229,000~

완도항출발 (블루나래) 1인 ₩169,00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1인 ₩155,000~

제주도 골프투어 - 항공/선박골프패키지 1박2일

[명품2회] 테디벨라+블랙스톤 ₩405,000~
[명품2회] 테디벨라+세인트 ₩385,000~
[명품2회] 라온+블랙스톤 ₩413,000~

여행사 파트너 모집 | 광주/전남 T.062-675-0064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 이유여행사 374-1881 | 메이투어 070-7093-0555 | 한별투어 956-0045 | 침단/투어디자인 974-3050 | 무등파크여행사 384-7470 |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 고고투어 603-4416